

지역 매 아리

정읍시, 주요업무 보고회 가져

정읍시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시청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각 소관 국·소장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공약사업 등 40개 사업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설문화공간 '정읍문화원, 수제천 전승회관 조성 검토 △정읍시문화회 내 있는 추진 △2020년 드론 페스티벌, 캠핑 페스티벌과 어린이날 기념행사 연계 추진으로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가정 시장 주간 운영 △시민 친화적인 공간 조성 △저소득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방안 강구 △희화용품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꼼꼼한 추진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민선7기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해 조 직개편에 따른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양파 소비 촉진 운동 실시

정읍시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작황 호조로 양파가 평년보다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양파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과 시청의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방 사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12일까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15일 시청광장에서 830명 약 17톤을 전달했다.

또 시는 양파연구회, 고모네장터와 협력해 북면에 소재한 고모네장터 직매장에서 특판행사도 벌인다. 특판행사는 이달 23일까지 실시되며 양파 1방(20kg)에 4천원~6천원에 판매된다.

더불어 지역 내 농협과 농산물유통센터(APC) 등 관련 기관에서도 양파 판매와 소비촉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파연구회 문형석 회장은 "양파 소비 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건강에 좋은 양파를 많이 애용해 우리 농업인에게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을 비롯한 범시민 양파 사주기 운동이 우리 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결

정읍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우수제안 9건 선정

정읍시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과제 공모' 결과 9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공모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무 부서의 1차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2차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경로당운영비 포괄적 사용 허용을 제안한 복면 사무소 박종호 씨가 선정됐다. 박 씨는 경로당운영비 집행 시 고령인 어르신들의

상황을 고려해 사용 용도와 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보조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수상에는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제한 기간 삭제'와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침 개정'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지원기준 변경 △북도 피난 유도 등 개선방안 △장애인 편의성 제고 △농지 내 불법 건축물 양성과 방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축산농가 축종 기준 세분화 △건축공사 기술지원 추진계획'에 따른 설계검토 한도액 개선 등 6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시는 8월 중 시장 표창과 함께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의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업체와 공무원들을 비롯한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최선

부안군, 상수원 보호구역 집중단속반 운영... 지도·감시 강화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진우)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8월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부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서 지도·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안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지정됐으며 상서면과 변산면, 진서면 3개면 지역에 면적 16.8㎢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취수원이다.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취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돼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를 초래하고 주변 취수원에서 원수를 공급받는 정수장 수질악화에 따른 정수처리 비용 증가 및 정수수질의 저하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및 광역상수원 지킴이 13명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취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돼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를 초래하고 주변 취수원에서 원수를 공급받는 정수장 수질악화에 따른 정수처리 비용 증가 및 정수수질의 저하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및 광역상수원 지킴이 13명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김진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순찰 및 지도·단속을 통해 수돗물 취수에서 정수과정을 거쳐 가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동참... 야간출동·소음 인식 개선

유진섭 정읍시장이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참여했다.

소생 캠페인은 전문 의료진에 의한 응급처리가 가능한 닥터헬기의 이착륙 소리가 풍선 터뜨리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착안해 마련됐다.

풍선 터뜨리는 소음을 인내하면서 닥터헬기 야간 출동과 소음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캠페인은 SNS를 통해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형태로 번지고 있다.

유 시장은 "닥터헬기가 보다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조금 시끄러울 수 있지만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위해 조금만 인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했다.

송하진 도시사의 추천으로 소생캠페인에 참여한 유 시장은 다음 릴레이 동참자로 서해시 정읍이병원장과

과 신일섭 정읍 경찰서장, 김중수 정읍 소방서장을 지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12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MAB한국위원회, 고창군이 공동주최·주관한 '제1회 유네스코MAB 청년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생물권보전의 진정한 의미 공유

고창군, 유네스코 MAB청년포럼 성료

전국의 청년들이 고창에서 생물권보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MAB한국위원회, 고창군이 공동주최·주관한 '제1회 유네스코MAB 청년포럼(9~12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포럼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돕고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연구·생태관광·교육 등 생물권 보전과 발전을 위한 청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온 20~30대 청년 60여명은 3박 4일간 고창 선운산유서스호텔에서 머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권보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했다.

특히 청년들은 상하농원 유기농우유, 호안마을 생태밥상, 오메이플

토요장터 등 자연생태를 이용한 고창만의 특화된 체험 관광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도 복분자를 활용한 머핀과 고구마 과자, 수박, 음료 등의 간식을 나눠주면서 따뜻한 정이 넘치는 행사가 됐다.

한 청년은 "녹색의 도시 고창에서 무엇보다 눈이 편안했던 시간이었다"며 "생물권보전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고창군민들이 부러웠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생물권보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생물권보전의 모범 사례로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한근호 부안부군수, 중앙부처 방문 적극 지원 요청

한근호 부안군 부군수는 16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를 잇따라 찾아 부안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한근호 부군수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격조향 확장개발을 위해 격조향을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부안 공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부안군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반영사업과 국비규모 등을 파악해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최대한 증액하는 등 시기별 대응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근호 부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사전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타당성 있는 논리 개발은 물론 지역민의 염원을 중앙부처에 잘 전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여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details about gift sets and prices.